새책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김종철 지음)='녹색평론' 발행인인 저자가 '간디의 물레'와 '땅의 옹호' 이후 10년 만에 출간한 사회평론집이다. 그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자기파멸적인 시간'으로 진단한다. 세계화와 경제성장 등 권력엘리트들 중심의 논리를 거부하고 근대문명의 '어둠'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녹색평론사. 2만원.

▶앤디 워홀은 저장강박증이었다(클로디아 캘브 지음, 김석희 옮김)=저자는 2세기에 걸친 기록들을 섭렵하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통해 링컨과 아인슈타인 등 12명의 삶과 정신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인간의 뇌와 행동이 얼마나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실감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모멘토. 1만5000원.

▶묻어버린 그 전쟁(현길언 지음)=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문제에 대한 글쓰기에 전념해온 저자가 6·25전쟁과 분단이라는 반인간적 비극의 참상과 후유증을 정면으로 파헤쳤다. 국가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휩쓸리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두 목사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본질과현상. 1만8000원.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 아니겠나(황학주 지음)=1987년 시집 '사람'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32년 동안 시작활동 중인 시인이 이번에는 '사랑'을 노래했다. 출판사 서평은 책을 이렇게 소개한다. "사람이라는 변심이 사랑이라는 뚝심으로 동상처럼 우뚝 서는 기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으는 마음으로 이 시집의 제목을 다시금 읽어본다." 문학동네.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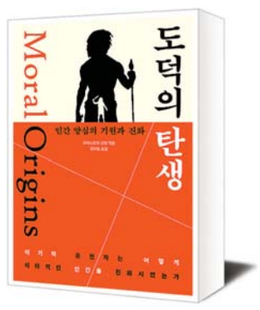
▶고개만당에서 하늘을 보다(고광민 지음)=제주를 비롯해 여러 섬의 민속과 생활사를 기록해온 저자가 울주지역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한 어르신의 농사일기를 풀어냈다. 일기를 쓴 김홍섭 어르신은 1955년부터 농사일기를 쓰기 시작해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당시의 물가, 시장에서 거래된 물건의 종류와 값, 경조사와 축의금의 변화, 마을의 살림 등 지역의 생활사가 담겨 있다. 한그루. 2만5000원.

▶나혜석(현진숙 지음)=나혜석(1896~1948)은 생전에 800여점 상당의 미술작품을 남겼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을 일으킨 탕녀라는 낙인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최근 시대에 맞선 선각자로서 그녀의 삶을 기리는 활동이 전개되고,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서귀포 출신의 저자가 나혜석을 재조명한 장편소설이다. 열림문화. 1만2000원.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이기적 유전자에서 진화한 이타적 인간

크리스토퍼 보엠의 '도덕의 탄생'



인간 양심의 기원과 진화 '죄책감'과 '수치심' 비교

다윈의 '자연선택'에 따르면 주변 환경에 적합한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체는 도태된다. 어찌 보면 단순한 이 통찰 하나가 자연에 대한 서구의 관념을 뒤바꾸고 인간의 시야를 우주로 확대시켰다. 다윈의 또 다른 대담한 가설은 도덕적 행동과 인간 양심의 기원으로 이어진다. 제인 구달 연구 센터의 소장이자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인류학 및 생물과학 분야의 교수인 크리스토퍼 보엠은 '도덕의 탄생'에서 지난 600만 년에 걸쳐 이타주의와 집단적 사회 통제가 발달하는 과정을 추적해 개체들이 집단 안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정교한 방어 매커니즘이 바로 우리의 도덕 감각이라는 이론을 제안한다.

저자에 따르면 바람직한 삶을 일궈내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악한 사람을 벌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옳고 그름의 감각을 구성하는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교한다. 죄책감이나 그와 비슷한 도덕적인 단어들은 수렵채집자와 부족민을 포함한 여러 언어에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부끄러움에 대한 단어는 어떤 언어에나 등장하고, 수치스러운 느낌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리적 반응과도 직접 연결된다. 수치심은 얼굴 붉힘이라는 도덕적인 반응에 의해 촉발되지만 죄책감은 이런 물리적인 상관물을 갖지도 않는다. 인간의 양심에 대한 진화론적인 기초를 다룰 때 수치심은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도덕과 수치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특이한 사람'인 사이코패스를 동원한다. 사이코패스가 결코 완전히 도덕적일 수 없는 이유를 "첫째, 이들은 외부를 향한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며, 그래서 사회의 규칙을 내면화할 수가 없다. 둘째,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저자는 인간이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어울려야 하며, 그 덕에 이타주의자들이 생존하도록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도덕적 기원에 대한 이 같은 탐사가 눈앞에 닥친 전 지구적 문제의 해법을 알려줄지도 모르겠다. 김아림 옮김. 리얼부커스. 2만8000원.

표성준기자

구멍숭숭 돌담 사이 푸른 빛 보이시나요

4·3다룬 임철우 소설 '돌담에 속삭이는'

한은 탄생과 동시에 아비의 수의를 물려받았다. 연좌제였다. 대학 졸업 후 사립학교 교사가 되고 가정을 꾸렸지만 한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비의 죄를 대신 치러야 했다. 그가 퇴직한 뒤 향한 곳은 제주섬. 4·3 60주년이 되는 해에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지면을 통해 드러난 제주는 한이 평소 알던 곳이 아니었다. "육지와 이 섬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위치한 별개의 행성 같았다."

임철우의 신작 소설 '돌담에 속삭이는'은 한이 제주섬에서 겪은 이야기다. 제주로 거처를 옮긴 임 작가의 분신인 양 주인공 한은 소설 속 1948년 월산리 학살사건을 통해 4·3이 이 섬에 드리운 크나큰 슬픔과 마주한다.

"안 돼. 보지마. 너 같은 아이들은 저런 끔찍한 모습을 봐선 안 돼. 아아, 사람이, 사람한데, 사람이, 사람을…….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봐선 안 돼. 너무 많은 죽음을 본 사람은 장차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 사람들 속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다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돼."

한 앞에 환영으로 나타나는 일곱 살 몽희. 아이의 엄마는 이 섬에서 벌어진 참극 앞에서 실성한 듯 삼남매를 껴안고 흐느낀다. "죽는다, 죽었다, 죽인다, 죽였다"가 아니라 "그냥 꽃송이가 되어 땅에 툭 하고 떨어진 거"라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엄마의 말처럼 몽희 삼남매는 끝내 꽃이 되어 떨어진다.

소설은 몽희네 가족의 사연을 좇으며 제주신화 속 서천꽃밭섬으로 이끈다. 열다섯 살을 넘기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간다고 믿는 낙원 같은 서천꽃밭에서 어린 영혼들이 고이 잠들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읽힌다.

60년 전 동백처럼 스러진 아이와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한을 연결하는 건 돌담이다. 몽희는 한이 사는 집 돌담 사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신호하며 아직 이 섬을 떠나지 못했다고 알린다. "남다르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한이었기에 그 존재를 알아봤다. 공감과 연대는 이 땅의 눈물을 멈추게 할 마지막 힘일지 모른다. "그 섬엔 별보다도 많은 어린아이들의 슬픈 혼이 돌담 틈에 숨어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섬에 가거든, 부디 돌멩이 한 개도 무심히 밟고 지나지 말라." 현대문학. 1만1200원.

진선희기자

저자와 함께 신작 시집 오승철 시인

"우리가 놓친 현대사 돌아보려 했다"

신작 시집 '오키나와의 화살표'에서 오승철 시인은 제주를 넘어 잊혀진 현대사에 눈길을 둔 시편을 통해 민족화해, 치유를 그리고 있다.

'오키나와의 화살표' 등 담아 뱃길로 15시간 중국 단동 등 현장서 빚어낸 화해의 시편

어느 날 그는 중국 단동을 찾았다. 배로 장장 15시간을 달려 도착한 길이었다.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국경도시에서 그는 한 편의 시를 썼다.

'자 받게, 이 사람아, 아니면 따르던가/ 내가 니 보러왔지/ 누굴 보러 왔겠나/ 아, 얼른 이 잔 안 받어 팔 떨어지겠어// 단둥과 신의주 사이 뚝 끊긴 철교처럼/ 삐걱이는 이 환상통아/ 팔 떨어지겠어/ 압록은 어디로 뜨고 가을만 흐르는 강'('압록강 단교(斷橋)' 중에서)

제주 오승철 시인. 그곳에서 시인은 끝내 '돌아서면 남보다 더 낯선 내 사람아'라며 그리운 그림을 부른다.

그가 4년 만에 내놓은 네 번째 시집 '오키나와의 화살표'는 잊혀진 현대사를 돌아보는 작품들에 무게가 실렸다. 1988년 '제주도의 젊은 시인'으로 제주4·3의 총성에 놀란 장끼의 울음소리가 곳곳에 스민 첫 시집 '개닦이' 이래 그의 시는 4월의 참상을 줄곧 품어왔는데 이번에는 4·3을 넘어 "우리가 놓쳐버린 역사를 보자는 마음으로 쓴 시들"이 펼쳐진다.

표제작부터 시인의 시선은 오키나와로 향해있다. '오키나와 바다엔 아리랑이 부서진다/ 칠십 여년 잠 못 든 반도/ 그 건너/ 그 섬에는/ 조선의 학도병들과 떼창하는 후지키 쇼겐'으로 시작되는 '오키나와의 화살표'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이국의 인물을 불러왔다. 후지키 쇼겐은 조선학도병 740인의 위령탑 건립과 유골 봉환 사업에 일생을 바쳤다.

오키나와에 멈췄던 눈길은 중국 연변으로 옮겨간다. '일송정'이 노랫말로 등장하는 가곡 '선구자'의 고향인 연변에서 시인은 '왜 왔냐 묻지 마라/ 왜 남았냐 묻지 마라/ 팔랑팔랑 예닐곱 살 할아버지 따라온 길/ 아리랑, 정선아리랑 내 길을 묻지 마라'('낙장불입 2')는 정선 땅 홍씨 할머니의 사연을 만난다.

시의 무대가 되는 현장을 직접 누비며 길어올린 작품을 통해 시인이 닿고자 하는 지점은 분단의 극복이다. '한반도의 끝과 끝,/ 제주도와 함경도' 방언이 유독 닮은 현실을 짚은 '아스', '휴전선 철책 너머 종지읓 흩뿌리면' 응수하리라 기대하는 '윤노리나무' 등은 '민족 화해'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 그려낸다. 황금알. 1만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백두산완전정복/노쇼핑/노옵션 ★착한패키지★
백두산 4일(5성급)
7월~10월 매주 수요일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준5성호텔, 특식 2회, 전신마사지 1회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노쇼핑/산위숙박
상해/황산 4일
7월~10월 매주 목,금요일출발
895,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8,957적립
고속열차 왕복, 5성급, 산위 1박, 특식 2회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REAL 마카오 4명출발
마카오 완전일주 4일
7월~9월 매주 수,금요일출발
797,6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76적립
노쇼핑, 마카오 1박 특급호텔 업그레이드
세계문화유산 투어, 덤보레스토랑, 에그타르트 제공

품격 삼색여행
홍콩/마카오/심천 4일
7월~10월 매주 수요일출발
996,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67적립
★나이트투어+베네시안카지노★ 피크트램/빅토리아산정+점보/덤보레스토랑

8명특가 실속 호텔업
대만 타이페이/화련/야류/지우펀/스펀 4일
7/12,30 8/17,21,27 9/10,18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특급호텔 무료 업그레이드〉 고궁박물관/야시장/해양공원+몽골리안BBQ/샤브샤브

2억보증보험가입업체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온천여행♨
후쿠오카/유후인/벳부 4일
7월~8월 매주 토요일출발
6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80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후쿠오카 트윈룸 2박
+벳부 온천호텔 1박, 온천욕♨

★가격혁명★ 극한특가/전일투어
오사카/나라/교토/고베 4일
세미더블, 시내 3연박 7월~8월 매일출발
691,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10적립
〈10명 선착순 파격특가+간사이 핵심 전일투어〉 시내 3연박

동경/가마쿠라/요코하마 4일(트윈)
7월~10월 매주 수,토,일요일
692,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20적립
〈10명 선착순 파격특가+동경 및 근교 핵심 전일투어+동경시내 또는 디즈니랜드 선택일정 가능〉 전일정 트윈

제주직항
대한항공
북경+태항산/대협곡/팔천협 4일
7월~10월 매주 수,목,금.토
697,8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78적립
고속열차 왕복, 5성급, 태항대협곡(도화곡/환산선/왕상암)+팔천협, 특식 3회

제주직항
남들보다 특별한
방콕(초특급)/파타야(초특급) 5일
7월19일 ~8월31일 매일 출발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쇼핑3회 제한〉+전통안마2시간+알카자쇼+런치크루즈+왕궁

★착한패키지★ 오감만족/노쇼핑/노옵션
방콕/파타야 초특급 5일
7월19일 ~8월31일 매일 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왕궁+알카자쇼◆ 호텔씨푸드+산호섬+농눅빌리지+코끼리트래킹+안마2시간+시티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준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대표: 우종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5층 사업자 등록번호: 202-81-452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중구 제035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시 중구) 영업보증보험: 일반여행업보증 15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출발지: 제주공항 교통: 항공/전용차량 숙소: 일급호텔이상(상품 일정에 준함) 식사: 상품에 포함(단, 자유일정시 불포함) 최소출발 기준인원: 있음(상품별 상이) 선택경비(선택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detou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및 기사경비: 현지 별도 지불(일부상품제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보단계: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여행금지 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2016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2016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2016년 7월 31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